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오는 18일(화)

남자 다락방장 세미나

남자 다락방장을 중심으로 한 다락방 활성화를 기대하며

교회를 운영하고 부흥, 발전 시킴에 있어서 모든 기관과 직분자의 소임이 다 중요하지만 교구를 돌보는 일에는 특별한 사명감과 봉사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 4일에 교구일꾼 청지기수련회를 가진 바 있으나 교구위원회(위원장: 노문환 장로)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교구 운영을 위해 지난 13일(목)에 지역장과 부지역장을 대상으로 심방과 상담, 다락방 성장을 위한 지역장의 역할에 대해 세미나를 갖고 1994년의 보다 나은 지역관리를 위해 헌신하기를 다짐하였다.

계속하여 오는 18일(화)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될 남자 다락방장 세미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1994년도에는 남자 다락방장을 중심으로 한 다락방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총 73명의 남자 다락방장 전원이 참석하여 강의와 토론 및 결단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가장 소중한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교구일꾼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열납되며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이번 세미나가 좀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배워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 남자 다락방장세미나 일정

- 18:30 ~ 19:30 저녁식사
- 19:30 ~ 20:30 제1강 “남자 다락방장의 사명과 책임”
강사 / 이종윤 목사
- 20:30 ~ 20:40 휴식
- 20:40 ~ 21:10 제2강 “다락방 활성화를 위한 남자 다락방장의 활동지침”
강사 / 권상석 목사
- 21:10 ~ 21:30 토론 및 결단



'94 청지기수련회

이번 수련회는 지난 2일 헌신예배를 시작으로 10일까지 직분자별 강의와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보다 심도있는 내용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루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지만 새벽을 가르며 열심히 참석한 이들에게는 주님께 대한 사랑과 절박한 사명감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1994년도 제1차 학습, 세례식

1994년도 처음 세례식이 19일 수요일 I, II예배 시에 거행된다. 이를 위한 교육은 17일(월) 오후 7시 4층에서, 문답은 18일(화) 오후 7시 3층에서 한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목회자세미나 동문회 결성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의 동문회가 결성된다. 지난 2년간 4학기를 이수한 목회자들이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 교회의 갱신과 성장에 협력하기 위해 창립될 동문회 회원들에게는 본 연구원의 프로그램 참여 및 자료 습득의 기회가 주어지며 해외 연수의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발기 위원회 모임은 오는 24일 12시에 가진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신년 모임들

▶ **당회원 교역자 신년 하례회** / 우리 교회 당회원 및 교역자 가족이 지난 4일 한남동 감리교 여성교회 회관에서 모여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이종윤 목사는 “따로 세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구별되어 세움을 받은 일꾼으로서 의식구조나 처사가 남과 달라야 하며 따로 할 일을 바로 감당하기 위한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우리 교회를 선두에서 이끌어 가기 위해 따로 세움을 받은 60명의 장로와 교역자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것을 다짐하였다.

▶ **찬양위원 모임** / 찬양위원회(위원장: 나희주 장로)는 지난 6일 우리 교회 여섯개 찬양대 지휘자 및 반주자 모임을 갖고 이전보다 더 크고 깨끗한 헌신을 하기로 다짐했다. 당회장 초청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날의 모임에서 이종윤 목사는 그 동안의 헌신적 노고를 치하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더 큰 충성을 부탁하였다.

목회자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월 17일 ~ 19일, 미8군 수양관에서 개최될 「월드컨선 · 외향선교회 국내 사역자 세미나」의 개회예배에서 설교한다.
- 우리교회 협동목사인 심상권 목사가 운영하는 「한국기독교 상담문화연구원」에서는 17일 ~ 22일까지 제 1기 단기 상담세미나를 개최한다. (문의 / ☎ 549-5909)

교우동정

- 정성훈 군 (권길자 집사 아들) / 영국 Sussex 대학교 대학원 유학 (지리학 전공)
- 신동엽 군 (신문철 집사, 이승자 권사 아들) /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학위논문 통과
- 이영훈 군 (이재권 장로, 김연옥 집사 아들) / 영국 유학
- 전복용 성도 / 총경 진급

창세기강해



두 종류의 인간

(창세기 4장 25, 26절)

이 중 운 (목사·당회장)

어거스틴의 저서 「신의 도성(City of God)」에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주신 가인과, 아벨이 죽은 후 그를 대신하여 주신 셋을 통해 인류의 역사가 두 갈래로 진행되어 왔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책에는 마지막에 이르러 가인과 셋에 의한 상반된 두 문화가 하나의 접합점을 이루는 때가 곧 종말의 때로서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때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벨을 대신한 셋의 문화는 심판날에 영생에 이르며, 가인의 문화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심판에 이를 가인의 문화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다서 11절에 「가인의 길」이라고 표현한 그 문화는 모든 음악과 전쟁무기와 기계와 목축업의 시원이기도 했으나 결국 살인자의 길이요, 교만자의 길이요, 인본주의적이고 자아중심적이어서 하나님도 형제도 이웃도 없는 문화입니다. 반면 「믿음장」으로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셋의 후예인 에녹과 노아의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쁘시게 한 자요(히11:5), 죽음을 보지 아니한 자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사람입니다.

가인의 후에는 문화를 창달해서 자기 성을 쌓았습니다. 셋의 문화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교회를 이루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세웠습니다.

1.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한다.

아담과 하와는 셋의 출생을 일컬어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25절). 가인의 계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셋의 출생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아담의 고백은 전혀 새로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창세기 4장 1절에서 가인을 낳은 후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 향한 신앙을 보여준 것이 틀림없지만 그 고백은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

의 죽음을 통해서 하와는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는 자기나 아담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느냐 아니면 인간 중심으로 시작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선행되어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모든 일의 과정도 감찰하십니다. 현대 문화의 가장 큰 관심은 발전 개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화가 되어버린 개발 이데올로기는 인간을 구원하는 문화가 아니라 인간을 어렵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혼란과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공해 등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는 개발 이데올로기에 의한 병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쓸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른 씨를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 하나님만이 높아지셔야 한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는 마치 「시이소 오 게임」과 같은 원리가 작용합니다. 즉 인간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인간이 자기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 집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셋의 아들 에녹의 이름 뜻은 「부서지기 쉬운 자, 깨어지는 자, 죽을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입니다. 셋의 문화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문화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과 긍휼을 요청할 때에 셋의 계보를 통해 누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유다서 14, 15절에 「에녹은 경건치 않은 자를 정죄케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셋의 계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마지막 날 불신자들의 심판자가 된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노아를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한 의로운 선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셋의 계보에 속한 자는 불신자를 향하여 회개케 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자로 높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3.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구원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의존적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잠3:5).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한 후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4:26).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른 것은 아니지만 간절한 마음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창세기 4장 26절에서 우리는 작은 교회가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요한 칼빈도 이 구절을 설명하기를 「이것은 종교의 회복이다. 잃어버린 신앙의 회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형식이고 위선이고 거짓된 삶을 살았을찌라도 셋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찾고 부른 이 귀한 모습을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와 개인도 소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 순례자 컬럼 ✠

‘그날’ 이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 죽음 이후의 문제는 인생의 중요 관심사이면서도 현세에 바쁘다 보니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문제는 그날 이후에 되어질 일이 그날에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세상에서 행할 일로 결판이 난다는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다.

자녀의 진로 문제로 고민하며 염려하는 이들은 많지만 자식의 「그 이후」의 문제에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는 부모는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날 이후에는 가치관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경시되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날이 오기 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지역장세미나 스케치

“여보,
내 줄무늬 넥타이
어디있소?”

■…… 지난 13일(목)에 있었던 지역장세미나는 교구일꾼을 위한 청지기수련회의 연장으로 지역장과 부지역장을 위한 특별훈련이었다. 여기에는 이날 ‘심방과 상담’이라는 주제 하에 우리 교회 협동목사인 심상권 목사 (한국 기독교 상담 문화연구원 원장)가 강의한 내용의 일부를 발췌, 요약해 본다. ……………■

‘상담’이란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육신의 병이 들면 병원에 찾아가고 정신이 이상하다고 여겨지면 정신과엘 찾아가지만 마음의 병은 간과해 버리기 쉽다. 마음의 병을 고치려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며 교구를 맡아 심방을 하는 지역장들은 상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1. 경청의 중요성과 성서적 교훈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듣는 일’이다. 그러므로 심방자는 말하는 사람이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들어주어야 한다.

성경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귀가 복되다” 하심으로 듣는 일의 중요성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 특별히 믿음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롬 10:17).

2. 경청하는 데에 있어서의 장애

첫째, 선별적 경청(Selective Listning). 자신의 관심사만 골라서 듣는 것.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되는 잘못된 경청이며 오해를 낳는다.

둘째, 왜곡적 경청(Distorted Listning).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에 대한 불신, 열등감, 강박해진 마음가짐에서 연유한다.

셋째, 공백적 경청(Blank Listning)이다.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무관심과 불신, 고통을 외면하기 위한 자기 방어로 인한 것이다.

심방을 하는 지역장, 부지역장은 위와 같은 경청의 장애요소에 주의하여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토설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는 가운데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심방자는 이런 의미에서 치유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말씀을 대할 때에 자기에게 유익한 말씀만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거나 마음은 다른 데 두고 순종치 못한다면 말씀을 바로 들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3. 경청의 방법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이 다소 다급한 목소리로 “여보, 내 그 줄무늬 넥타이 어디있소?”라고 외칠 때, 남편의 그 말을 올바르게 알아 듣고 온전히 이해한 아내라면 “그 넥타이요, ○○에 있어요.”라고 답하기 보다는 그 넥타이가 필요한 남편에게 줄무늬의 넥타이를 찾아 신속히 대령할 것이다.

우리는 각자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바로 경청하고 그 말씀이 요구하시는 바를 믿고 순종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 귀한 자녀로 여김을 받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 듣는 일을 개발하고, 경청의 사역(Ministry of Listning)을 바로 감당하여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큰 기대도 별다른 목표를 세우는 일도 없이 새해를 맞았다. 수년간 해온 찬양대원으로서의 귀한 직분도 새로운 각오없이 계속할 뻔했다.

청지기수련회가 여러날 계속되었고 지난 7일 찬양대원을 대상으로 한 수련회에 나도 참여하였다. 수년간의 찬양대원으로서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새로운 결심도 하게 되었다.

찬양 드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기 위해 한 주일의 생활에 얼마나 근신하며 기도했는가? 찬양드리는 내 입술을 얼마나 성별 시켰는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찬양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과연 내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은 것일까?... 강의들을 들으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도전을 받았다.

무엇보다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사43:21), 우리 찬송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다(신10:21)는 말씀을 늘 듣던 말이지만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 피조물로서의 내 특권과 의무가 찬양이라는 것에서 ‘찬양’이란 음악적 용어라기 보다는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 청지기수련회에 참가하고서 ✧
날마다
‘시편’을 쓰는 마음으로

김재중 (집사·가브리엘찬양대원)

인 권위와 섭리에 대한 헌신적 고백이며 감격의 반응이라는 새로운 깨달음이었다. 그렇다면 찬양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할 행위이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기리고 높이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의 성품과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것이 찬양이라면 내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마치 ‘시편’을 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리라.

또 하나의 깨달음은 찬양대원은 예배위원이라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야 할 예배의 담당자이며 그러하기에 찬양대원의 모든 초점은 영적인 예배에 맞추어져야 하고 예배에 교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목회자의 목회를 돕는 교회의 지체요, 기관이라는 것이다.

청지기수련회 강의의 모든 내용들이 감사하고 두렵기까지 했으나 그 모든 내용들은 내 다양한 삶의 양태 속에서 다각도로 찬양을 드리는 삶에의 동기를 부여받는 데에 유용할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광대하신 그분을 발견하고 난 후의 자연스런 반응이 찬양이기에. 또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을 합하여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바 피조물들로부터 받고자 하신 ‘찬양’이기에.

이번 청지기 수련회를 통해 찬양과 나의 삶에 대해 새롭게 정리를 하고보니 찬양은 이 땅에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가장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할렐루야!

■ 선교지 소식 ■

위기에 처한 몽골 선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기도로 동참하자!



우리가 받은 구원의 혜택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운 신분의 변화를 생각할 때 복음은 모든 이에게 속히 전해져야 하리라는 사실에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려고 부르셨으니 어떤 모양으로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가 4개국에 여섯 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물질과 기도로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특별히 최근 몽골에서 온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며 위기에 처한 몽골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임을 절감케 된다.

▶몽골의 황필남, 김말레 선교사 사역



황필남·김말레 부부 선교사는 2년 전 파송을 받았다. 현재 사역하고 있는 몽골의 「영원한 빛 교회」는 1992년 11월에 설립되었고, 현재 주일 낮 예배에 주로 청년층인 300여 명의 성도가 모여 예배를 드린다. 두 개의 주일학교도 각각 120명 남짓 모이며 이같은 수적 규모는 몽골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한다.

선교보고서에 의하면 1993년 한 해 동안

교회의 각 기관을 조직하고 체계화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시키고 양육하는 일에 전력하였다고 한다. 여러 지방에 전도단을 파송하여 교회를 세우고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찾아 양육하는 일에 많은 열매가 있었음은 후방에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교회 덕분에 여겨진다고 감사의 말을 전해왔다.

▶기독교인에게 불리하게 공포된 새 종교법

몽골에 복음의 문이 열리니 이제 3년째. 이같이 교회가 부흥하는 중에 큰 시련을 맞고 있다. 1993년 11월 30일에 몽골에는 새로운 종교법이 선포되었는데 그 골자는 외국인들이 몽골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과 간접적으로라도 도울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모



→ 황선교사가 시무하는 「영원한 빛 교회」 주일예배 주로 청년층인 300여 명의 성도들은 새 종교법이 공포된 후 영적으로 위기를 느끼지만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다.

든 교회는 정부에 등록하여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하고 정부가 주관하는 대로 따라야만 하게 되어 있다. 공식적으로는 불교를 국교화하 다시피했고 불교와 사마니즘, 회교 외에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법안은 올해 2월 초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 몽골의 백여 명의 선교사들은 지금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몽골인 성도들도 금식을 하며 모두 특별 기도회를 갖고 있다.

그런데 새 종교법을 분석해 보면 인권을 무시한 사항들이 많아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 법안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고 만약 그대로 시행할 경우 1994년부터는 지원을 중지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으며, 몽골 외무부에는 시정을 요구하는 서신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역사하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몽골 복음화의 문이 닫히지 않기를 합심하여 기도해야 기도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두 분 선교사는 만약의 경우, 사역을 금지당하게 되어도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몽골 형제에 의해 계속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몽골인 언어로 자료들을 재구성하는 일에 전력하고 있다. 현재 기존 사역에 쓰인 자료들, 번역한 찬송가, 주일학교 설교자료, 구역예배 공과 자료 등을 번역 편집하여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복음의 전투성을 기억하자

몽골 선교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서신을 통해 접하며 영적 싸움의 실상을 실감한다. 그러나 이 풍랑을 인연하여 복음은 더 빨리 전파될 것이기에 최후의 완전한 승리는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며, 기도의 무릎을 연할 때다.

▶몽골 선교 사역 사진전시

우리 교회는 현지의 실상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위해 황필남 선교사가 보내 온 열 일곱장의 사진을 간단한 사진설명과 함께 1, 2층 복도에 전시하였다. 복음을 전하면 쉽게 받아들인다는 그들의 순수한 심정을 읽을 수 있는 사진들을 보며 몽골인도 복음을 받기 원하 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문화에 오염되기 전에 복음을 속히 증거하여야 하리라는 긴급한 마음으로 이백만 몽골인의 영혼 구원과 그들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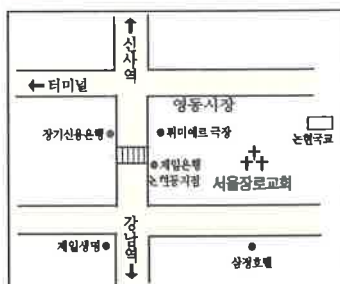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나의 갈길 다가도록」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09:00
	II부 오전 11:00
	III부 오후 02:00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05:00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00
	II부 오후 07:00
금 요 기 도 회	오후 09:00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05:30

■ 교회위치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교회당 신축을 위한 터가 마련되도록
2.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가 되도록
3.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 나라가 되도록
4. 해외에 나가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